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동남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계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크게 하락하였다. 국내 기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2.6%에 달했으나 2015년 27.9%까지 낮아지며 최대 경제권역인 수도권과의 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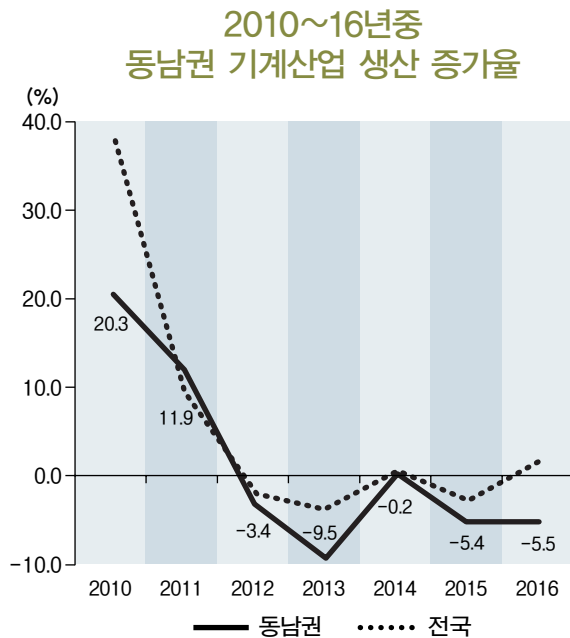
하지만 2017년 생산 반등세를 시현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도 상반기 중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조선, 자동차 등의 회복 지연으로 내연기관·터빈, 가공공작기계 등은 부진하였으나 중국수출을 중심으로 건설광산기계가 높은 실적을 기록한 데 주로 기인한다.

전방산업 부진으로 내수부문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가운데 G2 무역분쟁 심화 등도 예상되어 성장지속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업황 호조세를 견인해 왔던 중국의 건설광산기계 수요 증가세 지속, 베트남·인도 등 신흥국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동남권 기계산업은 하반기에도 완만한 성장이 기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기계산업 위상 하락

동남권 기계산업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2012~16년 중 연평균 4.8% 생산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같은기간 전국의 기계산업 생산 감소세 (-1.5%)와 비교할 때 하락 폭이 컸다. 이로 인해 2016년 생산수준은 2011년과 비교할 때 77.8%까지 낮아졌다.

국내 기계산업에서 차지하는 동남권 기계산업의 위상²⁾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전국 기계산업 대비 비중은 32.6%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27.9%까지 낮아진 것이다. 같은기간 수도권과의 비중 격차도 9.7%p에서 15.3%p로 크게 확대되었다.



주 : 1) 전년대비 증가율
 2) 2018.1H는 1~5월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권역별 전국대비 기계산업 비중 (% , %p)

구분	2010년 (A)	2015년 (B)	변동폭 (B-A)
수도권	42.3	43.2	0.9 ↑
동남권	32.6	27.9	4.7 ↓
충청권	11.5	13.0	1.5 ↑
대경권	8.5	9.4	0.9 ↑
호남권	4.5	6.0	1.5 ↑

주 : 매출액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1) 본고에서는 기계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CI)상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에 한정하여 논의
 2)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2010년 및 2015년 전국 경제총조사를 활용

지역별로는 경남의 기계산업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010년과 2015년 모두 경기에 이어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매출은 26조 5천억원에서 22조 8천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전국대비 비중도 6.6%p 낮아지면서 전국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였다.

같은기간 부산은 매출이 5조 9천억원에서 7조 6천억원으로 소폭 늘어났으며 2010년과 2015년 모두 5위로 평가되었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0.5%p 상승하였다.

울산은 2010년 9위에서 2015년 8위로 순위가 높아졌다. 매출 규모가 2010년 2조 5천억원에서 2015년 4조 7천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p 상승하였다.

주요시도별 기계산업 전국대비 비중

(십억원, %, %p)

구분	2010년			2015년			변동폭 (B-A)
	순위	매출액	비중 (A)	순위	매출액	비중 (B)	
경기	1위	31,563	29.4	1위	40,282	32.0	2.6 ↑
경남	2위	26,517	24.7	2위	22,790	18.1	6.6 ↓
인천	3위	10,735	10.0	3위	10,971	8.7	1.3 ↓
충남	4위	7,860	7.3	4위	10,091	8.0	0.7 ↑
부산	5위	5,886	5.5	5위	7,600	6.0	0.5 ↑
⋮	⋮	⋮	⋮	⋮	⋮	⋮	⋮
울산	9위	2,548	2.4	8위	4,732	3.8	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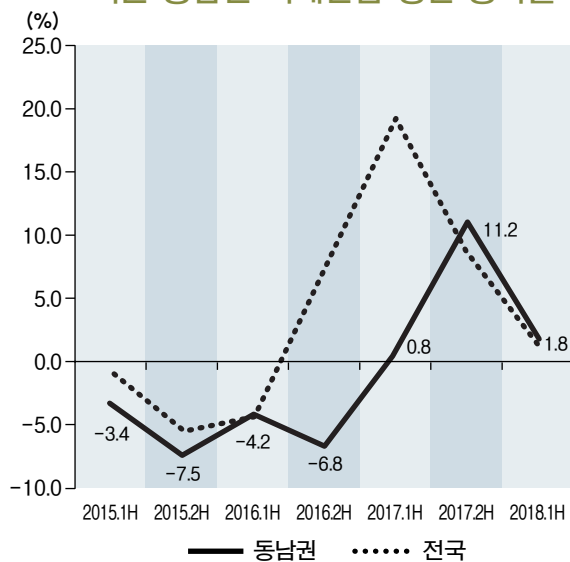
주 : 매출액 기준
 자료 : 통계청(경제총조사)

2017년 이후 생산 반등 움직임

2012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되던 동남권 기계산업은 2017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³⁾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생산이 큰 폭(11.2%)으로 늘어나면서 전국 성장률(8.6%)을 상회했으며 금년 상반기(1.8%)에도 전국(1.3%)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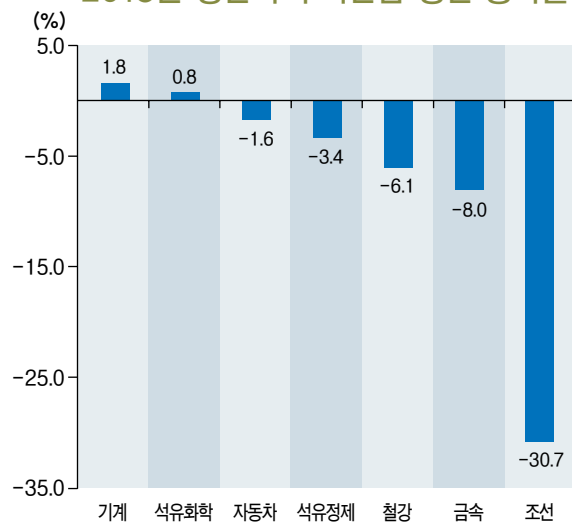
특히 동남권 주력산업 대부분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이루어내었다. 금년 상반기중 자동차(-1.6%), 석유정제(-3.4%), 철강(-6.1%), 금속(-8.0%), 조선(-30.7%) 등이 생산 감소세를 기록한 상황에서 기계산업이 호조세를 시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동남권 기계산업 생산 증가율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18.1H는 1~5월 기준
자료 : 통계청

2018년 상반기 주력산업 생산 증가율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18.1H는 1~5월 기준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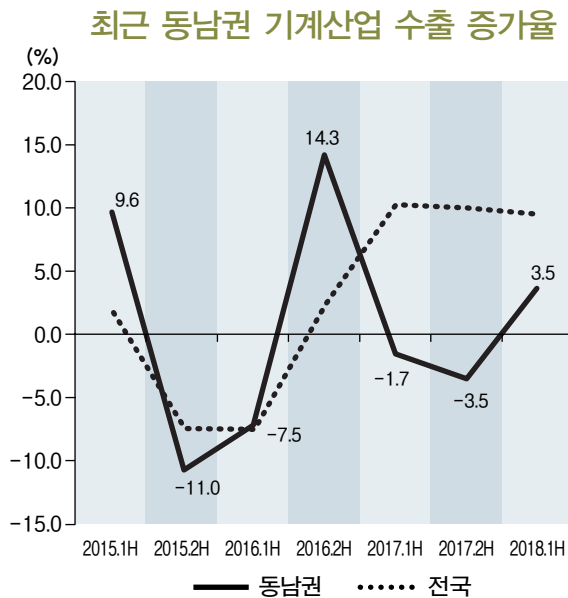
3) 반기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7년 상반기 증가세(0.8%)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 하반기 전년동기대비 11.2%의 급성장세를 기록한 이후 2018년 상반기에도 증가세를 시현하는 모습

수출도 증가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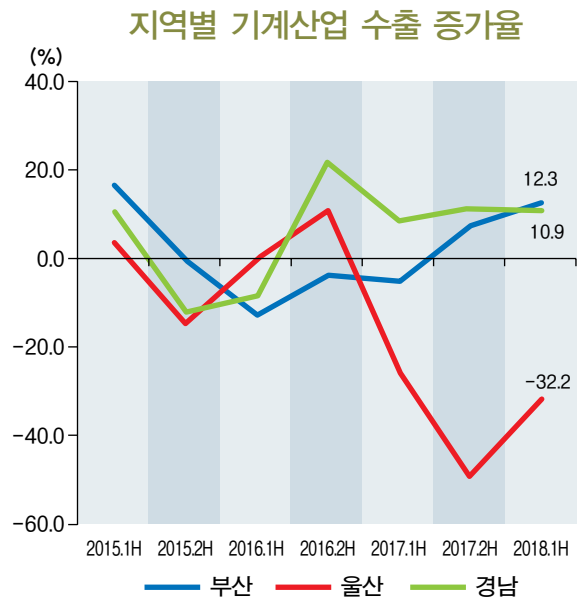
동남권 기계산업 수출⁴⁾은 생산의 회복시기보다 늦은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2018년 상반기 수출액은 7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출호조는 경남의 증가세가 지속된 데 상당부분 기인한다. 동남권에서 수출 규모⁵⁾가 가장 큰 경남의 경우 2016년 하반기 이후 높은 증가세를 이어나가며 금년 상반기에도 10.9% 상승했다.

부산도 지난해 이후 반등하며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중 12.3% 상승하며 지난해 하반기(7.2%)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울산의 경우 2017년 상반기 이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금년들어 감소 폭이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18.1H는 1~6월 기준
 자료 : 통계청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18.1H는 1~6월 기준
 자료 : 통계청

4) 기계산업 수출은 MTI 분류상 71(기초산업기계), 72(산업기계), 75(기계요소공구및금형), 79(기타기계류) 합계로 계산
 5) 지역별 기계산업 연간 수출규모는 경남이 97억달러, 울산이 29억달러, 부산이 24억달러 순임(2016~17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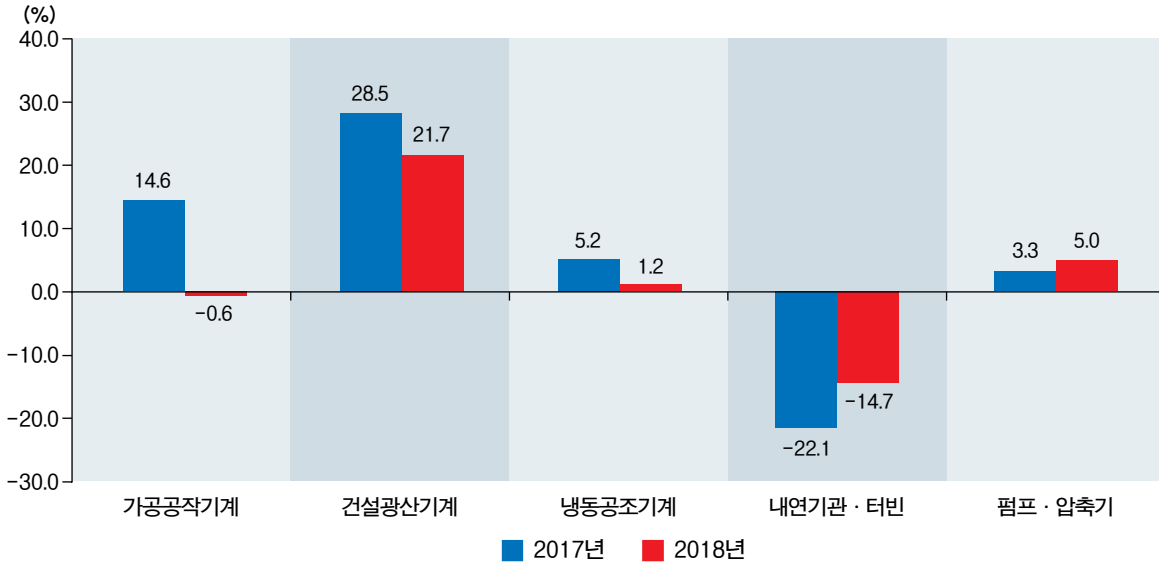
건설광산기계 약진이 최근 성장을 견인

2017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동남권 기계산업 생산 회복세는 동남권 5대 주력품목 (가공공작기계, 건설광산기계, 냉동공조기계, 내연기관·터빈, 펌프·압축기)중 건설 광산기계가 상당부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⁶⁾

전국적으로 건설광산기계 생산은 2017~18년중 연평균 20%가 넘는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동남권이 국내 건설광산기계 생산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불보그룹코리아 등 주요 생산업체들이 다수 동남권에 입지한 것을 감안할 때 지역의 생산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⁷⁾

반면 금속 절삭 또는 성형 장치 등을 제조하는 가공공작기계의 경우 금년중 감소세 (-0.6%)로 전환되었으며 주로 선박의 구성품으로 활용되는 내연기관 및 터빈 도 2017년과 2018년 모두 두 자리수의 감소세를 기록했다.⁸⁾

동남권 기계산업 주력품목 생산 증가율



주 : 전국 기준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6) 굴삭기 최대수요국인 중국의 경우 지난해부터 굴삭기 판매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중에는 전년동기대비 57%의 높은 실적 증가세를 시현

7) 건설광산기계 등 세분류 기준 생산실적은 지역별로 발표되지 않아 전국단위에서만 확인 가능

8) 내연기관·터빈은 전국의 75.6%, 가공공작기계는 49.3%, 건설광산기계는 49.2% 비중 차지

동남권 주력품목별 매출액 상위 20대 기업 분석에서도 건설광산기계 업체의 실적 개선⁹⁾이 뚜렷하다. 동남권 건설광산기계 업체중 75%가 영업이익 개선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성미에스테크(중장비 운전석), (주)일성엠텍(부쉬, 핀, 로드), (주)대덕(굴삭기 브라켓) 등은 전년대비 10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볼보그룹코리아(굴삭기)¹⁰⁾의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소폭 줄었으나 2016년 이후 이익규모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공작기계 업체중에서는 60%가 영업이익 개선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남권 5대 주력품목 업체중 냉동공조기계, 내연기관·터빈, 펌프·압축기 생산 기업은 조선산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절반이상 영업이익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기계산업 5대품목 영업이익 현황

구분	가공공작기계	건설광산기계	냉동공조기계	내연기관·터빈	펌프·압축기
영업이익 개선업체수 ¹⁾²⁾³⁾	12개 (60%)	15개 (75%)	10개 (50%)	10개 (50%)	7개 (35%)
영업이익 평균	617억	1,970억	1,143억	382억원	297억원
영업이익 1위업체 및 주력제품	두산공작기계(주) (머시닝센터, NC보링)	볼보그룹 코리아(주) (굴삭기, 지게차)	(주)지스엔텍 (폐열회수장치, 열교환기)	에스티엑스 중공업(주) (플랜트, 엔진기자재)	윌리엄프(주) (액체펌프)

주 : 1) 조사대상기업은 각 품목별 매출액 상위 20개사
 2) ()내는 개선업체 비중
 3) 2016년 대비 2017년 영업이익

자료 : 통계청

9) 영업이익이 확대되거나 영업적자 폭이 축소된 기업 기준

10) 볼보그룹코리아의 영업이익은 2013~16년 연평균 110억원 내외였으나 2017년 이후 160억원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

하반기 완만한 성장 기대

하반기에도 동남권 기계산업의 내수부문은 전방산업 부진으로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선은 글로벌 환경규제 및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등으로 수주 확대가 예상되나 실제 건조와의 시차 등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에도 생산 개선세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신차출시 등의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보호 무역 강화 등이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G2 무역분쟁 등의 불확실성은 대외부문 성장 폭을 축소할 전망이다.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동남권 기계산업 수출중 각각 17.1%와 18.2%를 차지¹¹⁾하는 최대 수출대상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 한국무역협회에서도 기계산업을 전기·전자, 철강 등과 함께 무역분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남권 기계산업은 하반기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자동차 등 전방산업 회복지연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기 어렵겠지만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2017년 이후 기계산업 성장을 견인해왔던 중국의 건설광산기계 수요가 환경규제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 및 광산수요 확대 등으로 당분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진전,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기 회복, 베트남·인도 등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대외여건 개선이 예상된다. 이는 G2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상쇄하고 기계산업 업황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기계연구원도 올해 기계산업이 대외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전년에 이어 2%대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 2016~17년 수출액 기준

[참고 1] 동남권 기계산업 주력품목의 지역내 비중

▣ 5대 품목은 동일, 품목별 순위는 큰 폭으로 변화

- 2010년, 2015년 모두 동남권 기계산업 5대 주력품목에는 가공공작기계, 건설광산기계, 냉동공조기계, 내연기관·터빈, 펌프·압축기가 포함
- 품목별 순위를 살펴보면 냉동공조기계, 내연기관·터빈은 2010년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나 2015년에는 3위와 4위로 하락. 같은기간 냉동공조기계 매출은 연평균 9%의 높은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내연기관·터빈 매출의 경우는 연평균 12.8% 급감

(%)

구분	2010년	비중	구분	2015년	비중
1위	냉동공조기계	(20.4)	1위	가공공작기계	(14.6)
2위	내연기관·터빈	(18.9)	2위	건설광산기계	(14.3)
3위	가공공작기계	(14.2)	3위	냉동공조기계	(13.9)
4위	건설광산기계	(8.6)	4위	내연기관·터빈	(10.9)
5위	펌프·압축기	(7.6)	5위	펌프·압축기	(10.4)

주 : 1) 상위 5대품목 기준 2) ()내는 동남권 기계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통계청(경제총조사)

[참고 2] 동남권 주요 기계품목이 전국 기계산업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 내연기관·터빈은 전국의 75.6%, 가공공작기계 및 건설광산기계는 약 50% 매출이 동남권에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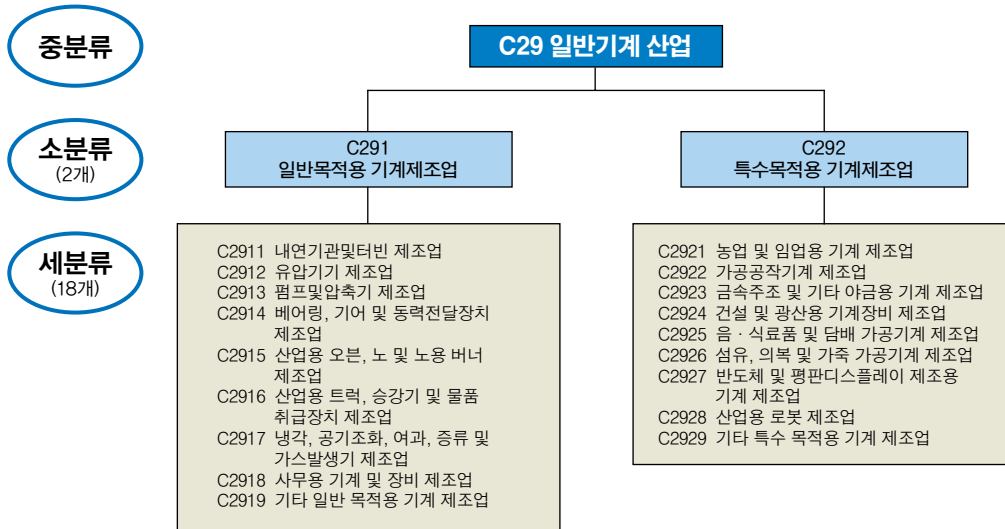
(%)

구분	2010년	비중	구분	2015년	비중
1위	내연기관·터빈	(88.9)	1위	내연기관·터빈	(75.6)
2위	유압기기	(56.3)	2위	유압기기	(55.5)
3위	가공공작기계	(55.6)	3위	가공공작기계	(49.3)
4위	베어링·기어	(43.9)	4위	건설광산기계	(49.2)
5위	냉동공조기계	(38.3)	5위	베어링·기어	(43.9)

주 : 1) 상위 5대품목 기준 2) ()내는 전국 기계산업 품목에서 동남권 기계산업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통계청(경제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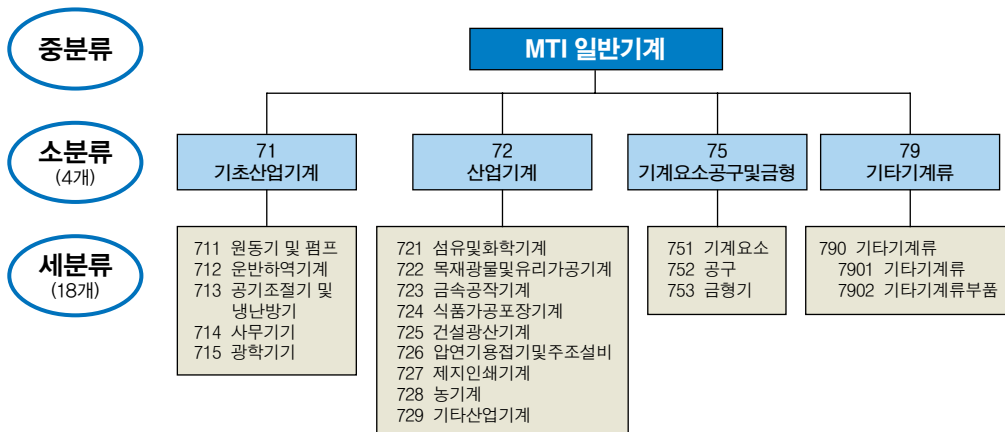
[참고 3] 산업분류 상에서의 일반기계 산업구조

■ 표준산업분류 상의 일반기계



■ MTI 일반기계

* MTI (Ministry of Trade Industry)는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품목 분류체계



[참고문헌]

통계청, www.kosis.kr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www.komma.org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 18년도 상반기 동향과 하반기 전망,” 2018.7

_____, www.koami.org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산업 2017년 성과와 2018년 전망,” 2018.2

한국무역협회,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간 통상분쟁,” 2018.7

_____, www.kita.net

Bloomberg, www.bloomberg.com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8.7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화환을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5

01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우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그가 건넨 건 우산이었지만 제가 받은 건 큰 응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면접날, 잘 되리란 희망보단 지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잠도 설치고 긴장도 되고 날씨가 무거웠죠.
막 도착하는데 급기야 비까지. 속상해서 눈물 나기 일보 직전인데,
웬 직장남이 우산을 쓰도록 주고 뛰어가더라고요.

**청년들의 희망이 젖지 않도록
꿈은 펼칠 수 있도록**



**BNK금융그룹
우산나눔 캠페인**

생각지 못한 비가 내릴때 BNK에 오시면 누구에게나 우산을 빌려드립니다.
언제나 맑아게 빌려쓰시고 필요할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하나의 우산에서 모두의 우산으로, 한 사람의 마음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
BNK금융그룹이 만들어갑니다.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BNK금융지주

제2018-07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18년 7월 31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